

SI 육용종계장 뚫어... 닭고기 수급난

익산 하립 종계장 살처분... 육계 산지가 평년보다 3~400원가량 높은 2100원 유지

서해안을 타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립이 직영하는 육용종계장까지 뚫린 가운데 이번에는 닭고기 수급난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겨울 AI 피해로 닭고기 유통량이 평년보다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AI가 재발해 산지 공급 여력이 더욱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익산에 위치한 하립의 직영 육용종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6만5000수를 선제적 살처분 매몰처리 했다.

고병원성 검사 결과 H5N8로 판정됐고, 부화중인 종란 120만개도 즉시 폐기 처분했다.

이와 함께 하립 육용종계장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 농가 448호(400만 7000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 예찰과 일제소독도 진행됐다.

하립 관계자는 "종계를 사육하는 곳이라 다른 곳보다 더욱 신경을 써서 방역을 했는데 AI가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사태 해결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립 육용종계농장을 비롯해 서해안

지역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해 닭고기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닭고기 가격도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닭고기 유통 물량이 평년에 비해 20%가량 감소해 육계 산지 가격(kg당/대닭)이 평년보다 3~400원가량 높은 21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이와 함께 학교 급식용 닭고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와 상승한 가격을 이유로 급식 메뉴에서 닭고기를 제외하고, 돈육 등으로 변경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닭고기 유통 업체 관계자는 "현재 닭고기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현재의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학교 급식도 유통 업체들이 시중 가격보다 500원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닭고기를 안정과 가격의 이유로 다른 축산물로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산 콩 가공품 학교급식 4월부터 시범 공급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지역에서 발굴·추진된 도내산 콩으로 만든 가공품(장류, 두부류)을 학교급식에 4월부터 시범 공급한다.

이번 시범 운영으로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산 장류와 두부류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별 콩 가공품이 학교급식에 직접 공급하기 힘든 구조였지만, 이번 시범운영으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지역의 콩 가공품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동안 학교급식에 공급해오던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마을, 협동조합, 6차 산업체 등에서 만든 도내산 콩 가공품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가 콩의 원료 생산정보, 가공품 안전성, 국가·지자체 인증여부 등을 학교 영양교사와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의 정책적 상생 협력으로 도내 학생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장류와 두부류를 맛볼 수 있고, 농가의 판로에 숨통이 트일 첫 걸음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중제품보다 마을제품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학교의 많은 참여를 통한 급식용 대용량 제작 등 단가 절감과 전북산 콩 가공품 사용의 중요성 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에 따르면 6일 전북 인사혁신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 인사담당장과 학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맞춤형 '인사혁신방안' 도·시·군 함께 만든다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 개최... '도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강화' 등 논의

전북도에 맞는 맞춤형 '인사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와 시·군 및 학계·연구원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에 따르면 6일 전북 인사혁신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 인사담당장과 학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지방인사제도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 및 주민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상명 하달식 정책추진으로는 정책의 현장수용성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는 일선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

고, 학계·연구원 등 인사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지방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두뇌집단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인 황성원 교수(군산대 행정학과)의 '전라북도 인사발전 방향정립'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에서는 전북 인사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정립과 중앙-전북의 주요 인사관련 이슈들, 그리고 나아가 갈 방향까지 제시했다.

또한, 시·군별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관료운영직군 규정개정 건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확대 건의' 등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도, 시·군 간 상호 협의도출이 필요한 '경원경찰도 일괄 공개채용

실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강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는 4월 중 워크숍 및 실무회의를 통해 '전북 맞춤형 인사혁신 방안'을 상반기 내로 최종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북이 나아가야 할 인사혁신 방향에 대해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 토대가 되며, 나아가 도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의 기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생생마을 만들기 UCC 전국 공모

9월15일까지... 농촌경관·마을상품·농촌체험 3개 부분

전북도가 '제1회 생생마을 만들기 UCC 전국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건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농촌마을의 숨어 있는 매력을 발굴·홍보해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의 가치제고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함께하는 생생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농촌경관, 마을상품, 농촌체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농촌마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활영지역은 전북 농촌마을로 한정되며, 타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동영상으로 광고, 영상소설, 패러디, 감동 이야기 등 자유롭고 창의적인 형식으로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을 구성해 응모 가능하다.

응모기간은 2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공모주제에 맞는 동영상을 촬영해 본인계정의 Youtube, Facebook에 업로드 후 신청서를 전자우편(rdadud6@korea.kr)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응모요령은 전라북도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응모작을 SNS, 유튜브에 게시하도록 해 공모전 개최과정에서 전북 농촌마을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신규 선정

24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는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신규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우수중소기업인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고 최근 2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로,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부문 등 6개 부문에 많은 성과를 달성한 기업 CEO와 중소기업지원 공헌도가 높은 경제단체 부문의 단체대표를

선정, 오는 5월중에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현장평가에 외부위원 참여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하고, 남성육아휴직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2점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 CEO는 24일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북도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추천서식 등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기업지원과(☎ 280-4732)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도, 6일부터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전북도는 봄철 농기계 순회 봉사를 실시한다.

봄철 농기계 수리봉사는 5개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아세아텍, IS엘트론(주)가 참여한다.

순회수리봉사는 14개 시·군에 5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전문 수리기사 7명과 5대의 차량으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전북도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농기계 고장 응급처치 요령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전교육 내용은 대형사고를 유발

하는 음주운전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와 농기계 점검·정비의 습관화, 안전화 등 작업 복장 착용 요령 등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교육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지도해 농업인들의 자체수리 능력도 높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